

화약고 이슬람, 국내연구는 침묵의 사원

세계적 명저 번역도서 전무, 개론 입문서 수준에 그쳐

공일주

한국외대 대학원 강사·아랍어

이슬람회의기구(OIC)는 94년 현재 세계 모스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23.2%(12억)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연일 외신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내전과 소요가 일고 있는 체첸공화국과 보스니아사태 그리고 알제리의 프랑스 여객기 납치 후의 상황 등이다. 알제리는 99%가 순니파 모슬렘인데 이 지역 모슬렘들은 지난날 기독교인의 정복·식민지·학정 등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한때 기독교인 조상을 가졌던 40%에 달하는 베르베르족이 아랍족에 동화되지 않고 있어 국가내부에서도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거기다가 1992년 다수의 득표를 했던 이슬람 구국전선의 집권 가능성을 막고자 정부가 무력진압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곧 빈부격차의 심화와 일반대중의 생활고가 증폭되면서 일반대중이 이슬람식 체제와 발전을 주장하는 이슬람원리주의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란이나 칼이나”의 聖戰 이어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이슬람개혁주의 운동이 서구문명과 결탁되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급진적인 모슬렘 과격파가 된 것이다. 현대문명의 세속적인 상황에 이슬람을 적용 내지 타협시키기보다는 성전(지하드)을 통해 이를 근절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알제리의 이슬람 구국전선, 이슬람 무장그룹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파 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아프간의 무자헤딘, 이집트와 수단, 튀르키예의 무슬림 형제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슬람원리주의 운동의 가속화는 반기독교 감정을 부추기고 기독교인과 교회 그리고 외국인이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그 나라를 떠나는지 샤리아법하에서 2등 국민으로 살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모슬렘들에게 서구의 종교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선 먼저 비모슬렘을 공격하게 되는 이슬람개념에는 ‘전쟁의 영역’(Dar al-Harb)을 들 수 있다. 이슬람에 의하면 세계가 두 지역 ‘이슬람의 영역’(Dar al-Islam)과 ‘전쟁의 영역’(Dar al-Harb)으로 나뉜다. 이슬람의 영역은 모슬렘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세계는 비모슬렘(이교도) 지배하에 있으므로 비모슬렘지역은 강제로 정복해서 ‘이슬람영

국내 이슬람 연구활동이 부진하다.

서울 한남동의 이슬람사원에는 오로지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만 드나든다.

그에 따라 관련저서도 드물다.

세계도처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지하드(성전)가 한창인 요즘,

우리의 관심은 그것에 국한돼 있다.

모슬렘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23%(12억)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보다 폭넓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지하드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끄쉬반디 수피 셰이크이었던 이맘 반수르가 1783년 반소비에트 반기를 든 후 1943~44년 약 40만명의 체첸인이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카자흐 등과 시베리아로 추방된 것에서 비롯되어 체첸인에게 종교적 전투정신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시베리아와 카자흐에 추방된 동안에 체첸-잉구슈 민족의 동질성의 핵은 역시 수피(이슬람 신비주의) 중심의 이슬람이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키르키즈 5개국에 80%(4800만) 이상이 모슬렘인데 이란제인 타지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모두 터키계이며 이들은 하나같이 수피 종단의 회원들에 의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수피 종단의 회원이 된 체첸인들은 이제 모스크가 필요없었고 이로써 비밀의 수피형제단을 발전시켰다. 1975년에 체첸의 모든 모슬렘의 절반이 수피이었고 이들 수피종단의 특징은 반러시아, 반공산주의의 비밀결사이었다. 모슬렘 움마에 속한, 민족을 초월한 이슬람 공동체의식이 확고하여 성전에 근간을 둔 민족주의와 공공연한 극도의 러시아인 혐오증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한으로 응어려져 있었다.

엘친은 작년 12월 11일 누다예프정권을 범죄단체로 규정했으나 체첸인구의 53%에 달하는 모슬렘과 체첸인은 러시아와 경제·안보 등에서 동등한 협상을 요구하며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에서 완전 독립을 꾀하려 했으나, 체첸은 1월 19일 최후거점이 함락됨으로써 러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 체첸의 이슬람 전사들이 러시아군의 공습이 잠시 한가한 틈을 타서 쉬고 있다.

시아가 인근 공화국들의 연쇄적인 독립은 막았으나 이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체첸의 상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알 수 있겠다.

세계화의 일환으로 이슬람연구 필요

해묵은 갈등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이슬람 분쟁지역이 보스니아이다. 공산체제 붕괴 후 민족과 종교별로 분열된 보스니아 내전은 1992년 3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인종청소’가 서방에 알려지면서 전투가열-소강상태-서방측의 경고 및 공습-협상개시 및 결렬-전투 재개와 소강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보스니아는 960년 세르비아에서 분리되었고 터키 점령 500년 동안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이 모슬렘이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의 직접적인 동기는 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보스니아 내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계가 이슬람계가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 세르비아인으로 구성된 독립국가를 구성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보면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보스니아, 체첸공화국

모두가 이슬람과 연계되면서 터키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고 이들이 수피 종단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면서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하드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보스니아에 사는 45%의 모슬렘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정상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바 있었고 보스니아 모슬렘은 정치적 독립, 지역안보, 통치권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체첸인의 러시아인에 대한 중요성 못지않게 400년에 걸친 모슬렘에 대한 세르비아인의 역사적 중요성은 현 보스니아 내전에 깔린 복병이다. 터키의 북상저지를 위해 합스부르크 제국이 300년간 전쟁을 치렀으며 이때부터 터키제국의 이슬람문명권과 합스부르크의 가톨릭 문명권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역사학자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도 이슬람권과의 협력을 강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서구인들에게 대결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어 앞으로 이슬람과의 충돌이나 대화와 조화라는 서방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이슬람지역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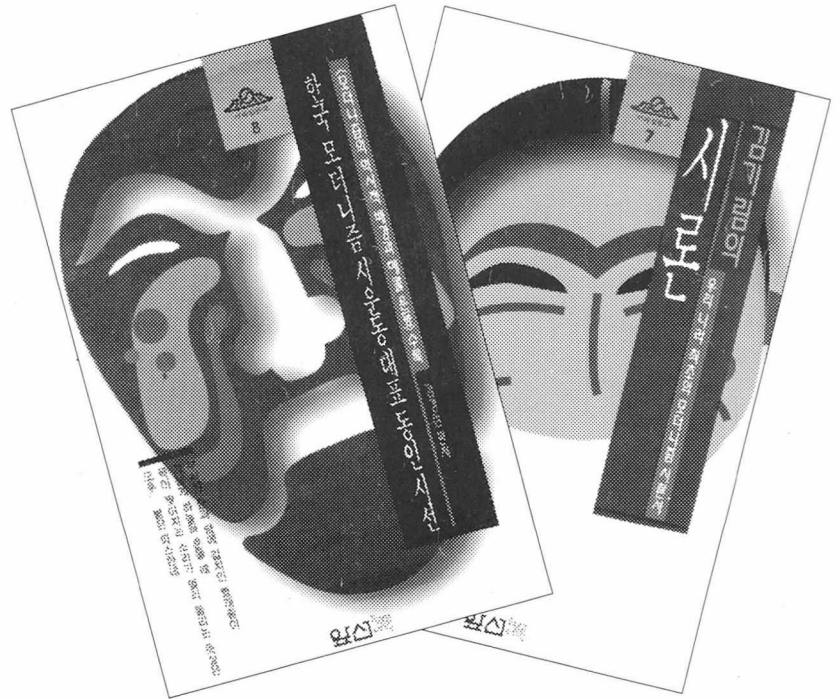
문고 시장을 살리자!

기와집문고

백·년·독·서

기와집문고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학제의 신간



국내 이슬람 관련 저서

저자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김용선	코란의 이해	민음사	1990
김정위	이슬람문화사	문학예술사	1981
김정위	이슬람입문	외대출판부	1993
김정위	중동사	대한교과서	1987
서재만	중동연구	중동문제연	1993
심의섭 외	이슬람경제학	마루	1985
유정렬	중동정치와 그 현실	어문각	1988
이희수	한·이슬람교류사	문덕사	1991
천재옥	이슬람연구1	이슬람연구소	1995
최영길	꾸란해설	송산출판사	1989
하경근	현대중동정치론	법문사	1985
한승수	중동경제	박영사	1977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부에 비친 공식 이슬람 못지않게 모슬렘의 삶 현장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민속이슬람도 균형있게 파악되어야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이 단지 원리주의자들의 급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국의 민족적 갈등, 소수민족의 역사, 급진이슬람세력과 온건한 이슬람세력 그리고 정치와의 연계성, 수피와 민속이슬람의 최근 동향, 기독교와의 갈등, 발칸반도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아랍민족주의, 이슬람 분쟁의 원인 그리고 경제 등의 문제가 모로코에서 필리핀의 민다나오섬까지 향후 다양하게 분석되어야 하겠다.

그렇다면 국내 이슬람 연구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우선 국내 이슬람 연구는 경제적인 힘과 정부의 대외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70년대에는 너나할것없이 중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 중동 정책의 변화에 뒤따른 중동학 지원의 중단 등으로 학계와 업계는 더 이상 투자를 기울이지 못했다.

이슬람관련 명저 번역물 드물어

그러나 이슬람은 아직도 국제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 경제학자, 정치가, 사회학자, 그리고 그밖의 종교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그것은 주로 이슬람과 향후 종교-정치적(religio-political) 견해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이슬람

세계가 투쟁의 대열에 서게 되리라는 예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슬람을 더욱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내지 공동 노력을 위해 그들의 신앙인 이슬람은 물론 이슬람 문화와 모슬렘의 관심사를 연구한다면 우리의 대중동 외교·경제·정치·학문의 위상이 가일층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슬람과 아랍어를 자유롭게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더구나 국내 이슬람의 연구 활동이 부진하고 일부 몇몇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결집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한남동의 이슬람 사원에는 오로지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대학에 있는 중동·이슬람 관련 연구소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한편 이슬람연구소는 1992년에 설립되어 국내 이슬람권 관심자에게 연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슬람 연구」 발간과 세계 이슬람학 석학들을 매년 두차례씩 초빙하여 국내 이슬람 관심자에게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 전 모슬렘의 3/2가 사는 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Asia in Islam」이란 책을 현재 번역 중에 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 1년분(22호분) 30,000원
- * 반년분(11호분) 16,000원

기와집문고

- 1 "1933년 일본의 이와나미문고로 첫 출간" **김소운의 한국 구전 동요**
김소운 편저/192쪽/3,800원
- 2 "동화문학의 원형, 그 학술적 가치" **한상수의 한국 구전 동화**
한상수 편저/288쪽/3,800원
- 3 "우리나라 최초의 베스트셀러" **김성철의 고쳐 쓴 한국 역사**
김성철 지음/272쪽/3,800원
- 4 "홍종우, 왜 김옥균을 살해하였는가" **刺客 홍종우**
아오야기 미도리 지음/김심은 옮김/358쪽/4,800원
- 5 "관소리의 정본제시" **신재효의 관소리 여섯바탕집**
신재효 편저/강한영 교주/304쪽/4,500원
- 6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숙명이 되어있는 모든 생활인에게 바치는 글"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
김진섭 지음/275쪽/3,800원
- 7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즘 시론서" **김기림의 시론**
김기림 지음/242쪽/3,800원
- 8 "〈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과 에콜 운동〉 수록"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 대표 동인 시선**
김경린 편저/206쪽/3,800원
(계속 펴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8/D 723호



TEL. 784-4251 · 2 / FAX. 784-4253